

Synopsis

제목 : 진짜 급행료는 따로 있다

주 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처리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기 획 의 도

연극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민원인)도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올바른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줄 거 리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처리팀.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질리듯이 오랜 공직생활이 지겨운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어느 날 한명의 민원인이 찾아온다. 민원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며 월간지 '좋은생각'이라는 책을 한권씩 나눠주며 사무실을 떠나는데 책 속에는 놀랍게도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다. 상품권을 본 공무원들은 아이의 장난감을 사는 상상, 자신의 명품백을 사는 상상, 승진을 위해윗사람에게 상납하는 상상을 하게 되지만 곧 잘 못 된 생각임을 깨닫고 민원인에게 돌려주며 사업자등록증이 빠르게 처리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된다.

진짜 급행료는 따로 있다.

대본 김현중

장소(무대)

무대는 세무서 사무실로 표현된다. 무대 뒤 벽면 중앙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태극기 오른쪽에는 공무원의 신조가 걸려있다. 무대 뒤 벽면에는 관공서를 알리는 포스터 몇 장이 붙어 있다. 무대에는 책상 4개가 있고 책상들 앞에는 3인용소파와 탁자가 있다. 책상위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서류와 필통, 전화기 등이 놓여 있다. 탁자 위에는 커피, 녹차, 종이컵 등이 있고 전기주전자가 놓여 있다.

시간. 현재. 점심시간 이후.

등장인물.

- 홍계장(남, 58세)** 20대에 9급 공무원을 시작하여 현재 6급 계장이다. 늘 청렴이라는 신조를 지켜오고 있다.
- 김계장(남, 46세)** 6급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7급 계장이다. 몇 년째 승진에서 누락 되어 삶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고민만 하고 있다.
- 양주임(남, 35세)**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8급 공무원이다. 공무원 생활이 조금씩 지겨워 지고 있으며 직장이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신주임(여, 27세)** 이제 시보딱지를 뗀 9급 신입공무원이다. 공무원 합격이 인생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점점 깨지고 있다.
- 이호권(남, 39세)** 8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작은 물류회사를 창업하게 된다. 자기 나름의 소신이 있으나 귀가 얇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무대 조명이 밝아오면 음악소리는 줄어들고 왼쪽 출입문에서 양주임, 신주임이 들어오고 홍계장, 김계장이 들어온다.

신주임 아~ 배불러. 조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양주임 지금 그 몸매 유지하려면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

홍계장 점심 먹으러 갈 때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이 누구야?

양주임 (김계장을 보며) 계장님이 늦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있어서 저희들 먼저 나왔잖아요. (소파로 이동하여 거피를 탄다)

김계장 지가 늦게 나왔는다…. 왜 그런데요?

홍계장 김계장!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사무실 전등을 끄고 나와야지! 운영지원과에서도 에너지 절약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김계장 아이고~ 성님. 그거 몇 분이냐 한다고 아랫사람들 보는데서 그러슈!

홍계장 윗사람이 술선수범해야지 아랫사람이 보고 배우지. 신주임! 안 그래?

신주임 (놀라며) 네? 예…. 그렇죠. 에너지 절약…해야죠.

홍계장 (신주임 노트북을 가리키며) 근데 신주임은 왜 컴퓨터 안 켜어? 저거 화면보호기 돌아가는 것 안보여?

신주임 아~! 계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끄고 다닐게요.

김계장 성님이 그런다고 떡이 나오요? 밥이 나오요? 암도 알아주도 않는 일을 뭐할라고 찾아 댕기면서 간섭이대요!

홍계장 불 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다 세금이잖아. 에너지 절약이 곧 국민세금 절약인거 몰라?

김계장 누가 그걸 모르요? 어찌다가 실수하면 열흘 굶은 들개처럼 달려드는 성님이 미워서 하는 소리지라. 그라고 성님. 평생 에너지 절약 잘한다고 상을 줍니까? 승진을 시켜 줍니까? 앵간이 험시다.

홍계장 여기서 승진 얘기가 왜 나와? 30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게 없으면 됐지.

김계장 부끄러운거 없어서 좋겠소. 나가 지금 성님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도 지금 4년째 미끄러져서 나이 마흔 여섯에 아직도 7급이 뭐대요. 나도 퇴근 뒤에 일 좀 해 볼까. 윗사람 술자리 찾아 댕기면서 아부 좀 떨어볼까.

양주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각자의 책상에 놓으며) 하여간 우리 김계장님은 권력 지향형 인간이시라니까. 계장님 성격에 아부를 어떻게 하실려구요.

김계장 나도 하근 잘하재. 그게 반칙같아서 안 함께 그라재.

양주임 술상이나 안 없으면 다행이겠네요.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커피 한잔씩 하세요.

홍계장, 김계장, 신주임은 커피가 놓인 각자의 책상에 앉고 양주임도 커피를 들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무대 오른쪽에서부터 홍계장,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 책상이다.

신주임 (커피잔을 들어 안을 들여다 보며) 양주임님! 저는 블랙이라고 했잖아요!

양주임 신입아~!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블랙은 니가 자주 가는 별다방에서나 시켜 드셔요. 나도 니가 타주는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신입들은 연수원에서 커피 타는 것부터 배워 와야 되는 거 모르냐?

신주임 저 커피 탈려고 공무원 된 거 아니거든요. (커피를 마신다)

양주임 나는 커피 탈려고 공무원 됐냐? 타주면 조용히 좀 드셔 주세요.

김계장 그래도 나는 양주임이 타준 커피가 질로 맛있든다. 점심 먹고 꼭 양다방 커피를

마셔줘야 돼야. (커피를 마시다가) 그란디~ 요즘 구내식당 맛이 별루 없지 않아?

양주임 그러게요. 저도 맛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계장님도 그걸 느끼셨네요.

홍계장 구내식당 밥맛이 왜 없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아는데... 왜 그런지 가르쳐 줄까?

김계장 이유가 뭐다요?

양주임 일하는 아줌마들이 바뀌었나 봐요?

홍계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건 말이야. 자네들 입맛이 변해서 그래.

김계장 에이~. 그것은 아니지라.

양주임 진짜로 맛이 없어졌다니까요.

홍계장 구내식당 맛은 그대론데 자네들 입맛이 변해서 그렇다니까. 자네들 여기 전 입 온지 몇 년 됐어?

김계장 2년 거의 됐지라.

양주임 1년 6개월이요.

홍계장 자네들 여기로 발령받아 처음 왔을 때 구내식당 밥맛이 전국에 있는 세무서 중에서 최고라고 하지 않았나?

김계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맛이 다르당께요.

홍계장 나는 여기 두 번째 발령받아 근무하는데 처음에는 자네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사람 입맛이 요래 간사 하구나 그때 느꼈다네.

신주임 저는 아직도 구내식당 음식이 맛있던데요. 어떤 반찬은 집에 싸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홍계장 신주임은 역시 신입이라 순수하구만. 옆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구.

신주임 (양주임을 보며 의자를 조금 멀리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양주임 쇼핑물 명품가방 사진 보면서 순수하게 침 흘리는 신주임님. 그 침 이쪽으로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서로 멀리 하자고...

김계장 구내식당이 익숙해져서 맛이 없어분거네. 날마다 묵은디 질릴만도 하재. 맛있게 먹을라든 가끔 가야 쓰것구마(웃음)

양주임 직장도 익숙해져서 일할 맛이 없나? 익숙함! 그게 무섭네. 아직 덜 익숙한 신입이가 부럽다.

신주임 (놀이듯) 때가 많이 묻은 양주임님. 초심을 꺼내 드려다 보세요.

양주임 나도 이 직장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이였다. 연수원에서 선서를 하며 평생 국민의 봉사라고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는데 그 약발이 오래 안 간다. 신입아! 일에 치여서 살고 결혼해서 가정에 치여서 살아봐라.

너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열심히... 구내식당 밥이나 많이 먹어둬라.

신주임 걱정 마세요. 저는 평생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저는 누구처럼 변하지 않아요.

홍계장 자~! 자~! 점심시간도 끝나 가는데 이제 일들 합시다.

신주임/양주임 예/네

김계장 알겠습니다요.

홍계장은 책상위에 서류를 넘겨 검토를 하고 있고 김계장과 양주임, 신주임은 노트북에 연결된 마우스를 만지거나 키보드를 친다.

김계장 (노트북을 들여다 보다 홍계장에게) 성님. 사고사례전과 공람문서 읽어 보셨을까요?

홍계장 지금 검토할 서류가 있어서 업무망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왜? 무슨 내용인데?

김계장 거시기. 이땡땡 서장이라고만 나오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뇌물 받아 먹다 걸려서 파면당하고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한디요. 나가 소문 들어서 안디 이땡땡서장이 이성규서장인 것 같어라... 그분이 성님하고 동기 아니요?

홍계장 (아무런 대꾸없이 서류만 넘겨보고 있다)

김계장 성님 못 듣는 데끼 할라요. 그래도 동기라고 듣기는 싫은 갑소잉.

양주임 (노트북을 보며) 이야~! 이분 정말 어마 어마하게 드셨네. 이런 쓰레기 같은 (홍계장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춘다)사람 때문에 우리 같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 다니까.

신주임 (김계장에게) 이성규 서장님이 우리 홍계장님하고 동기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김계장 똑같은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디 누구는 3급 기관장이고 누구는 6급 계장이 될 수 있는 곳이 우리네 조직이 아니것어.

신주임 그게 가능해요? 이성규 서장님은 뺨이 엄청 크신가 봐요?

김계장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자수성가여. 자수성가!

신주임 예? 그게 무슨 말 이에요?

김계장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했다는 얘기제.

신주임 일을 잘 하셨나보네요?

김계장 겁나게 잘 해부렸재. 여기 저기서 급행료 받아 가면서 허벌나게 잘 해부렸재.

신주임 급행료요? 그게 뭔데요?

양주임 순수한 신입이는 몰라도 된다.

신주임 제가 순수한건 사실이지만 알 것은 알아야죠. 좀 갈쳐주세요.

양주임 왜? 너도 급행료 한번 받을려고?

신주임 뭐 나쁜 것이 아니라면 승진을 빨리할 수 있다는데...

김계장 신주임! 그러다가 누구맨치로 파면당허고 형사고발되부러
신주임 예? 그게 뭘데 파면을 당해요?
양주임 급행료 그게... 쉽게 말하면 뇌물이야.
김계장 옛날 옛적에는 급행료만 잘 받아도 승진이 가능했었재. 까~마~~~득한 옛날에.
신주임 그래요?
양주임 옛날에는 세무서 조직은 작은데 일은 많았잖아. 그 많은 일이 처리 되려면 너
 무 오래 걸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일 먼저 처리해 달라고 뒤로 몰래 뇌물을
 줬는데 그게 급행료야.
김계장 지금 말하면 부끄러운 애긴디 그때는 민원인이 자기일 잘 처리해 달라고 봉
 투를 몰래 주고는 했당께. 여기 뿐만아니라 구청이고 시청이고 경찰서고 급행
 료 안 받는디가 없었당께.
신주임 근데, 급행료를 받아서 어떻게 승진을 해요?
양주임 그 급행료를 받으면 본인만 먹는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윗사람에게 상납 하는
 것이 관행 이였어. 급행료 많이 받는 사람이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평가
 되기도 했었지.
신주임 양주임님은 왜 그렇게 잘 아세요? (양주임을 노려보며) 혹시? 급행료?
양주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지. 지금 급행료 나올 때
 가 어디 있냐? 조그만 것도 다 전자입찰이고 민원도 전산 등록되어 별 문제
 없으면 선입선출로 처리하잖아. 내가 그 시절에 일 했으면 아마...
김계장 왜? 양주임도 집 몇 채를 샀을 것 같어? (양 손목을 붙어 양주임을 보여 흔
 들며) 집사고 나서 쇠고랑차고 큰집에서 살라고...
양주임 에이~! 저라면 그 시절에 한탕하고 그만뒀죠!
김계장 이성규서장이 그 버릇 못 고쳐서 아직도 급행료 찾다가 그 꼴이 됐잖아. 그
 것이 처음이 어렵지 해본 놈들은 계속 하다가 결국 들통 나서 끝장 난당께.
홍계장 조용히 하고 일들 합시다. 일들 해! 이성규 서장이 그 시절에 윗사람을 잘 못
 만나서 못 된길에 들어서 그렇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김계장 (홍계장을 보며) 우리 성님도 그때 급행료만 받았어도 어디 세무서 서장은 하
 고 있었을 것인다.
홍계장 (손에 몽당연필을 들고 일어서며 김계장에게) 헛소리 작작하고 칼 있으면 칼
 좀 쥐봐~!
김계장 (양팔로 몸을 감싸 방어자세를 취하며) 뭘 칼이라우? 설마 지를...
홍계장 연필 깎는 칼!
김계장 (홍계장 손에 든 몽당연필을 보고 뺏어 든다) 아이고 이렇게 작은 몽당연필을
 어떻게 쓴다고 그라요. 버리고 새것 씹시다. 신주임! 연필 새거 가져와봐.

신주임 예. (책상서랍에서 연필 새것을 꺼내 일어선다)

홍계장 (신주임에게) 됐어. 가져올 필요 없어. (몽당연필을 다시 가져오며) 불펜 몸통에 끼우면 아직도 충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칼이나 쥐봐!

김계장 아이고 성님! 애길 것을 애껴야제. 연필장사들 굵어 죽어 불것소.

김계장은 책상에서 칼을 꺼내 홍계장에게 건내 주고 홍계장은 자리에 앉아 연필을 깎는다.

김계장 (연필깎는 홍계장을 놀리듯)양주임! 신주임! 우리 홍계장님을 보고 본 받아야 하네. 나랏돈 애끼자고 저렇게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자네. 국민의 세금을 걷는 우리 세무공무원은 더 더욱 아껴야 쓰제.

신주임 우리 홍계장님은 일처리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늘 모범적이신데 대한민국 국가만 몰라주네요.

김계장 국가가 알게 해야지 알제. 요즘에는 왼손이 한일을 오른손에게 알리는 시상인디. 모범공무원 추천한다고 하면 한사코 반대나 하시고 본청에서 청장이 같이 일하자고 올라 오라고 해도 안 올라가니 승진을 할 수 있나. 완전 모지리여. 모지리.

양주임 김계장님! 아무리 그래도 모지리라는 말은 너무 심하셨네요.

김계장 내가 모지리라고 해도 가만히 있잖어. 저 봐봐. 그랑게. 저 성님은 진짜 모지리여.

홍계장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 진짜 모지리지. (웃으며) 내가 자네 같이 덜 떨어진 사람한테 화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김계장 (웃으며) 아따~! 인자는 성님이 나를 모지리 취급한다요.

홍계장 자네 같은 사람이 모지리지 누가 모지리야!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난 상 받는 것도 싫고, 승진하는 것도 싫고, 본청에서 근무하기도 싫어.

김계장 그러믄. 성님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뭐다요?

홍계장 남의 삶의 방향을 들여다 볼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김계장 성님. 왜 얘기를 그만 돌라고 한다요.

홍계장 근무시간에 일이나 해!

김계장 성님이 왜 얘기를 피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라우.

홍계장 (아무 말이 없다)

김계장 성님의 삶의 방향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라지라우.

홍계장 (김계장에게 얹은 미소를 보이며) 일이나 해.

김계장 저는 삶의 방향을 아부와 아침으로 바꿔 불라요. 성님처럼 만년 6급계장으로 정년 퇴직하기는 싫은께.

홍계장 아부나 아침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자네같이 불같은 성격을 못 해. 나 일

좀 하게 말 좀 그만 시켜.

김계장 누군 일이 없는지 아쑤. 나도 할 일이 태산이요.

홍계장은 연필로 문서를 체크하며 들여다보고 있고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노트북을 드러다 보거나 마우스를 만지거나 키보드 치는 모습으로 일하는 풍경을 보여준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무대 왼쪽 출입문에서 노크소리가 들린다.

신주임 네 들어오세요.

무대 왼쪽 출입문에서 서류가방을 메고 책 뭉치를 들고 이호권이 들어온다. 이호권의 모습을 보던 양주임이 일어나 이호권에게 다가간다.

양주임 아저씨! 안사요.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니거든요.

이호권 그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왔어요.

양주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서 제가 오해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아래층 민원실로 가셔야 해요.

이호권 (소심한 듯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자기 할말은 다 한다) 공무원들은 왜 그래요. 무조건 자기일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데 가라고 하고... 왜 그러세요? 처음에 민원실에 갔더니 징수팀에 가라고 하고 징수팀에 갔더니 민원실에 가라고 하고 다시 민원실 갔더니 이곳에 가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저는 어디를 가야 해요. 청와대 신문고에 가서 얘기해야 하나요?

양주임 (당황하며)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접수는 민원실 담당이 맞습니다.

이호권 사업자등록증 접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접수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나서 확인하려고 왔어요.

양주임 아! 그러세요. 일단 저기 소파에 앉으세요.

양주임이 이호권을 소파로 안내하여 소파에 앉게 한다. 이호권은 소파 탁자 가지고 있던 책을 놓고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양주임 선생님. 잘 찾아오셨네요. 아래층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 접수하면 여기 이곳 처리팀이 서류를 확인해서 최종승인을 하거든요. 맞게 찾아오셨네요.

이호권 민원실에서 내 얘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징수팀에 가보라고 하고 징수팀에서도 다시 민원실가라고 하고 민원실가서 청와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내 얘기를 들어보고 이곳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도 청와대 얘기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 주시네요.

양주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민원인이 찾을 일이 없는 곳이라서 오해 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이호권 아니요.
양주임 그럼 녹차로 드릴까요?
이호권 아니요.
양주임 그럼 등글레차 드릴까요?
이호권 아니요.
양주임 그럼 이 메밀차는 어떠세요?
이호권 네. 그거 주세요.

양주임은 종이컵에 메밀차 티백을 넣고 물을 따라 이호권에게 건넨다.

양주임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호권 이 호 권입니다.
양주임 잠시만 앉아 계세요.

양주임은 흥계장 책상으로 이동하고 이호권은 두리번거리며 메밀차를 마신다.

양주임 흥계장님!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한 민원인인데 언제 승인 되는가 확인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김계장 (양주임에게) 아따. 참말로. 내가 여기서 2년 가차이 근무했는디 저렇게 직접 과정을 확인하러 온 사람은 없었는디... 굉장이 적극적인 사람인가 보네이.
흥계장 민원인 성함이 뭔데?
양주임 이호권이라고 하는데요.
흥계장 생년월일은?
양주임 (이호권에게) 저기 선생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호권 76년 1월 11일입니다. (일어나서 양주님에게 대답한 후 다시 소파에 앉는다)
흥계장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이호권씨 접수일자가... 이주일전에 접수하셨네요. 선생님 처리기한이 한 달 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호권 한 달이나 걸려요. 조금 빨리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계장 (일어나 이호권이 있는 소파로 이동하며) 보통은 한 달 안에 끝나 불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걸리고 그란다. 집에서 가서 기다리시든 곧 될 것 같은데요.
이호권 제가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김계장 (이호권 옆에 앉으며) 76년생이른 나이도 젊으신디 무슨 일 하실라고 그라요.
이호권 조그만 물류회사 하나 차렸어요.
김계장 그전에는 뭐 하셨는디요?
이호권 대한물산에 다녔는데...

김계장 대한물산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할라고라~

이호권 아니. 그제. 경기불황 때문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하고 됐어요.

김계장 아이고 짠한거. 우짜쓰까. 젊은양반이….

이호권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 했는데 게시판에 붙은 정리하고 명단에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양주임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럼. 선생님! 대한물산이면 비슷한 회사에 이력서 내면 서로 오라고 안 합니까?

이호권 다 옛날 얘기에요. 업계 다른 회사도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반년 가까이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어요.

양주임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자영업자 50%가 2년 이내 문 닫거든요. 보통 결심이 아니면 힘들 겁니다.

김계장 양주임! 너는 뭐 헛소리를 그라고 하나? 인자 시작하는 사람한테 망해 분다는 얘기를 뭐 한디 하나.

양주임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독하게 먹고 하시라고 얘기 드린 거죠.

이호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회사 다닐 때 쌓은 인맥도 있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일감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월급쟁이보다 나올 것 같아요.

양주임 결혼은 하셨어요?

이호권 아내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두 명 있어요.

홍계장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가족들은 위해서라도 사업이 번창해야겠네요. 서류는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처리할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권은 일어나 홍계장에게 다가가 홍계장 손을 붙잡는다.

이호권 예전 거래처사장님이 베트남물량을 맡겨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적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홍계장 (이호권의 손을 놓으며) 사정은 딱한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김계장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그러다가 번개불에 콩 볶아 묵것소. 일이라는게 다 순서가 있고 검토해서 승인결재 날라른 시간이 걸리는 법인디.

이호권 제가 급해서 그래요. 이번 베트남 물량을 잘 처리해야 맡겨 주신 사장님도 저를 신뢰해서 계속 거래할거 아닙니까?

양주임 선생님. 조그만 기다리시면 연락 갈 거예요. 금방 연락 갑니다.

이호권 제가 이 사업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얻어서 아내랑 페인트 칠을 끝내고 애들하고 자장면 시켜먹으면서 모처럼 웃었네요.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이 웃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몇 번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선생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홍계장 (서류뭉치들 중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넘겨보며) 이호권씨 서류는 잘 갖춰 오신 것 같고 큰 문제없으면 곧 승인 날거니 댁에서 연락 기다려 보세요.

이호권 (홍계장에게) 선생님. 오늘 저녁에 바쁘지 않으시면 저랑 저녁식사 어떠세요.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제가 한번 모실게요. (신주임에게 다가가)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메뉴는 선생님이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신주임 음...! 계장님! 뽕스 스테이크 어때요?

양주임, 김계장, 홍계장이 신주임을 쳐다보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홍계장 (조금은 냉정한 어조) 저희는 식사대접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거니 돌아가서 기다려 주세요.

이호권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소파로 이동한 이호권은 가방을 메고 탁자위에 책들을 집어 들고 나서 홍계장 책상부터 책 한권씩 책상위에 놓는다.

이호권 이거 빈손으로 오기도 뭐해서 음료수 사올까 하다가 보험 하는 친구가 판촉물로 좋은생각이라는 책을 많이 가져왔길래 몇 권 가져왔네요.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가실 때 읽어 보세요. (책을 나눠주며 출입구로 이동한다)

홍계장 이러시면 안되는데 (책을 집어들어) 이거 가져가세요.

이호권 이천원짜리 책인데 뭘 그러세요. 뇌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사업자 등록증 빨리 승인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기를 끝마친 이호권은 출입문쪽으로 퇴장을 하고 홍계장은 조금 전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양주임 (신주임 흉내를 내며) 계장님! 뽕스 스테이크 어때요? 아이고 순수한 우리 신신입주임님은 스테이크를 많이 사랑하신가 봐. 어찌나~! 짹사랑인가보네.

신주임 아니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얘기한거죠!

양주임 신규연수 받은 때 연수원에서 청렴 교육시간에 즐았나 보네.

신주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국가공무원법 61조는 모두 외웠다니까요.

양주임 61조 그게 뭔데?

신주임 (큰 목소리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김계장 그란다. 신주임! 맨 앞장서서 향응을 받을라고 해븐네.

신주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양주임 뱍스 스테이크가 통상적인 관례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김계장 간단한 음료수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뱍스는 쯤 크구만(웃음)

신주임 그러면 (좋은생각을 집어들어)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선물이잖아요.

양주임 그런 것 받으면 안 되는데... 책 표지에 붙은 스티커 읽어봐.

신주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동반자 행복생명보험회사 김영춘.

김계장 그것은 책이기도 한디 홍보물도 되브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은 받을 수 있재. 가격도 이천원이니까 일반적 상식이 통하는 가격이구만.

홍계장 우리 김계장! 공무원행동강령 공부 좀 했나보네. 아주 잘 알고 있어. 나도 책을 돌려줄까 고민하다가 표지에 보험회사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만 됐는데...

김계장 성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책을 받고도 가만히 있길래 폴세 눈치 챘구만이라.

신주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저희 밥 사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직무관련자잖아요. 그럼 계장님들이 사주는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양주임 년 연수원에서 맨날 졸다가 왔지. 요즘 애들은 연수원에서 2차 시험 봐서 떨칠 애들은 다시 떨쳐야 된다니까. 이진 뭐 합격만 하면 머리가 텅텅 빈 깡통이 된다니까.

신주임 선배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양주임 알지. 그것도 아주 잘 알지.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되지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같이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장님들한테 날마다 밥 얻어 먹어도 되는데. (김계장에게) 계장님 오늘 한잔 어때요? (술마시는 흥내를 내며 혀를 차는 소리를 낸다)

김계장 그러까. 오늘 한잔 해볼까? (웃음) 성님 어떠시오?

홍계장 (결재판에 서류를 담아 들고 일어서며) 괜찮지. 오늘 한잔하지.

김계장 성님이 쏘는걸로..(웃음)

홍계장 양주임이 얘기하잖아? 상급자가 사야 된다며...(웃음) 나 과장님한테 좀 갔다 올게. 대면결재 할 게 있어서. 미리 장소 정해 놔. (홍계장 결재판을 들고 퇴장한다.)

김계장 (나가는 홍계장에게) 다녀오세요.

양주임 신입아. 오늘 우리 뵘스에 가서 소주 마실까?(웃음)
신주임 차라리 스테이크에 막걸리를 마시죠? 그만 좀 놀리고. 일이나 하세요.
김계장 메뉴는 신주임이 정해봐. 퇴근시간 전까지 고민해보드라고. 나는 골목시장 족발이 질루 맛있든디.(웃음)
양주임 그냥. 족발 먹으러 가자고 해요. 거기 못 간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족발로 하죠. 신신입님 어떠셔요?
신주임 저보고 메뉴 정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기어코 뵘스에 가서 칼질할래요.
양주임 족발을 따로 한 접시 앞에 놓고 포크하고 나이프 달라고 해서 썰어 먹어. 신주임 것만 특별히 미디엄으로 삶아달라고 부탁할거니까.
신주임 진짜 못 말려. 알았어요. 그냥 족발집에 가요. 제발 조용히 일 좀 하죠.
양주임 나도 바빠요. 혼자만 바쁜척은...

신주임과 양주임은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계장은 책상을 정리하다 책상위에 있는 좋은생각 책을 집어 들어 책장을 넘긴다.

김계장 (혼자말처럼) 우리 집에도 이런 책은 천진디. 차라리 시네21같은 영화잡지를 주지는...

책장을 넘기던 김계장은 책장 사이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눈앞으로 꺼내 보인다.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다. 김계장은 봉투를 열어 상품권 세장을 꺼내어 금액을 확인한다. 김계장은 놀란 표정으로 객석을 한번 보고 일하고 있는 신주임과 양주임을 살피다가 상품권을 다시 한 번 본다. 상품권을 봉투에 넣고 상의 양복주머니에 넣으려다 신주임과 양주임을 쳐다보고 상품권봉투를 본 후 상품권 봉투를 책장 사이에 집어넣고 책을 책상위에 놓는다. 김계장은 노트북을 보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시선으로 자꾸 좋은생각 책을 쳐다본다. 신주임이 키보드를 치다가 기지개를 켜며 책상위에 놓은 좋은생각 책을 집어 들어 책장을 넘긴다.

신주임 (혼자말처럼) 사람은 항상 좋은생각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사는지 모르겠네.

김계장은 신주임 혼자 말에 놀라며 신주임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하는 척 한다. 책장을 넘기던 신주임은 책장 사이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눈앞으로 꺼내 보인다. 신주임은 봉투를 열어 상품권 세장을 꺼내어 금액을 확인한다. 신주임은 놀란 표정으로 객석을 한번 보고 일하고 있는 양주임과 김계장을 보며 눈치를 보다가 상품권을 다시 한 번 본다. 상품권을 봉투에 넣고 상의 주머니에 넣으려다 양주임과 김계장을 쳐다보고 상품권봉투를 본 후 상품권 봉투를 책장 사이에 집어넣고 책을 책상위에 놓는다. 신주임은 노트북을 보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시선으로 자꾸 좋은생각

책을 쳐다본다. 양주임이 키보드를 치며 일을 하다가 하품을 하며 양손으로 눈을 비비다가 좋은생각 책을 집어 든다.

양주임 (혼자말처럼) 좋은생각?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냐?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책제목이 좋은 생각이야...

김계장과 신주임은 양주임의 혼자 말에 놀라며 양주임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하는 척 한다. 책장을 넘기던 양주임은 책장 사이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눈앞으로 꺼내 보인다. 양주임은 봉투를 열어 상품권 세장을 꺼내어 금액을 확인한다. 양주임은 놀란 표정으로 객석을 한번 보고 일하고 있는 양주임과 김계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치를 보다가 상품권을 다시 본다. 상품권을 봉투에 넣고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으려다 신주임과 김계장을 쳐다보고 상품권봉투를 본 후 상품권 봉투를 책장 사이에 집어넣고 책을 책상위에 놓는다. 양주임은 노트북을 보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시선으로 자꾸 좋은생각 책을 쳐다본다.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이 책을 동시에 보는 동안 심장박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점 더 커진다.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심장박동소리가 커질수록 놀란 모습이 더 과장되다가 심장박동 소리 멈추고 가수 왁스의 'Money' 라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기쁜 상상을 하는 듯 얼굴에 기쁜 표정이 보이며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무대 어두워지고 소파에 탑 조명이 떨어지면 음악소리 점점 줄어들고 신주임, 양주임, 김계장이 상상하는 내용의 극중극이 진행된다.

소파에 탑 조명이 떨어지면 긴 머리 가발을 쓴 김계장과 양주임이 소파에 앉아 있고 신주임은 명품가방을 메고 무대에 나타난다. 이때 진행되는 극중극에서는 김계장과 양주임이 여자목소리를 흉내 내며 신주임의 여자 친구들 역할을 하게 된다.

신주임 (어깨에 맨 명품가방을 친구들 앞쪽에 보여주며) 애들아! 늦어서 미안. 어디 좀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어.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위에 올려놓는다)

김계장 어머. 기집애. 조금 일찍 좀 다녀라. 기집애 맨날 늦어.

양주임 너 늦었으니까 별주 세잔 마셔(종이컵에 전기주전자에 들어 있는 물을 탄다)

신주임 야. 장난 그만해. (무릎위의 가방을 들었다 놓으며) 애들아! 나 뭐 달라진거 없니?

김계장 어머 기집애! 알았다! 이년은 별걸 다 자랑하드라~. 스타킹 색깔 바꿨구나?

신주임 나 원래 브라운이거든 (무릎위에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 년들은 꼭 내입으로 말하게 만들더라. 나 가방 바꿨잖니!

양주임 우와~! 공무원 박봉이라며 밥 사준다고 김밥나라 데려간 년이... 친구들 김밥 사 먹이고 지는 명품가방을 사. 나쁜년! (가방을 꺼안으며) 그래도 부럽다 이년아!

김계장 나. 급! 어이상실.(신주임 노려보다 웃으며) 가방 만지게 해주면 용서해줄게.
(김계장은 가방을 뺏어 가방끈을 이빨로 뜯어보며) 이거 진짜 정품 맞는데.
이거 얼마 줬어?

신주임 별로 안 비싸. 250만원!

김계장/양주임 (부러운 듯이 신주임을 쳐다보며)우와…

조명 점점 어두워지면 가수 왁스의 ‘Money’ 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소파에 탑 조명
이 떨어지면 음악소리가 줄어든다. 소파에는 유치원 노란모자와 턱받이를 두른 김계
장과 앞치마를 두른 신주임이 앉아 있고 양주임은 커다란 레고장난감 박스를 들고 무
대에 나타난다. 이때 진행되는 극중극에서는 김계장은 양주임의 유치원 아들, 신주임
은 양주임의 아내역할을 하게 된다.

양주임 선유야 아빠 왔다.

김계장 (어린이아이 목소리)와~ 아빠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신주임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양주임 선유야! 아빠가 레고 사왔지!(레고 상자를 선유에게 준다)

김계장 와~ 레고다. 레고.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스타워즈시리즈다.

신주임 여보. 이거 저번에 비싸다고 못 샀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샀어요.

양주임 (박력있게) 보너스 받았지. 장인어른 몸도 불편하신데 이번에 한약이라도 한
첩 해드려.(지갑에서 상품권을 꺼내 신주임에게 준다)

신주임 당신.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양주임 (김계장을 보며) 선유야 아빠한테 노래 좀 불러줄래.

신주임 선유야! 아빠 힘내라고 아빠 힘내세요 불러드려.

김계장 네. 알겠어요. (김계장 울동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덩동덩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아빠 힘내세요. 우
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양주임과 신주임이 행복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며 김계장이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조명 점점 어두워지면 가수 왁스의 ‘Money’ 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소파에 탑
조명이 떨어지면 음악소리가 줄어든다. 소파에는 양주임이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
고 김계장은 결재판을 옆구리에 끼고 무대에 나타난다. 이때 진행되는 극중극에서는
양주임은 김계장의 소속부서 과장역할을 하게 된다.

김계장 과장님. 결재 부탁드립니다.

양주임 이리 줘봐. 검토해 줄게.

김계장 여기 있습니다. (김계장은 결재판을 펼쳐 양주임 앞에 놓는다)

양주임 (서류를 살펴보다니) 내용에 요점이 없어. 이게 뭐야. 김계장! 공직생활 몇 년째예요?

김계장 17년 됐습니다. (간사하고 비굴함을 과장하며) 중요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양주임 (서류 한 장을 넘기더니 상품권봉투를 집어 들어 금액을 확인하고 양복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웃으며) 김계장! 내가 사과할게. 첫 페이지만 보고 김계장을 너무 낮게 판단한 것 같아. 다시 보니까 내용이 아주 알차. 17년 연륜이 느껴진다니까.

김계장 (웃으며)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알찬내용으로 자주 결재 올리겠습니다.

양주임 김계장이 이제야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군. 진즉에 그랬어야지. 몇 년 전에 6급 승진해야 될 사람이 아직도 7급 달고 있으니 쫓쫓.

김계장 (아부 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비비며) 앞으로 더욱더 잘 모시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양주임 (기쁜 표정으로 김계장의 턱밑을 긁으며) 그래. 그래야지. 그런 태도라면 이번 에 승진 심사때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김계장 (비굴한 웃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양주임과 김계장이 함께 웃으며 양주임은 강아지를 다루듯 김계장의 턱밑을 계속 긁는 동안 조명 점점 어두워지면 가수 왁스의 ‘Money’ 라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조명 다시 밝아오면 음악소리가 들리고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기쁜 상상을 하는 듯한 표정이 보인다. 잠시 후 음악소리에 심장박동 소리가 오버랩 되면서 음악소리 사라지고 심장박동소리가 점점 커지면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책상 위에 놓인 좋은생각 책을 동시에 집어 들어 책속을 들여다 본다. 세 사람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책을 책상위에 놓으며 놀란 모습과 불안한 모습이 과장되듯 표현되어 지다가 심장박동소리 멈춘다.

모두들 (큰목소리로) **김계장**:다들 봤재?/**양주임**:모두 봤죠?/**신주임**:그거 보셨어요?

김계장 다들 좋은생각을 자세히 봤는가 보네.

양주임 (감동한 듯이)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주임 (벅찬 감동) 맞아요. 내용이 너무 알차서 감동 이였어요.

김계장 집에 가져가서 자세히 읽어봐야 것재?

양주임 그럼요. 이런 책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읽어야죠.

신주임 그래요. 그래야 감동이 더 커질 거 예요.

김계장 좋은생각을 보더니 좋은 생각을 바로 해부네. 그러믄 각자 가져가서 읽어보고 읽은 소감은 마음속 깊이 몰래 간직하는 것이 어쩐가?

신주임 이런 멋진 감동을 나눌 수 없죠. 저만이 몰래 간직할거예요.

양주임 저도 이 감동을 아무한테나 나눌 없어요. 비밀로 간직할게요.

김계장 (갑자기 피식 피식 웃으며) 아따~. 자네들 장난을 잘 받아 주네. (일어서서) 다들 책들 이리 쥐.

신주임이 먼저 책을 들고 일어나 김계장에게 가고 양주임도 신주임을 보며 책을 들고 김계장에게 간다.

신주임 (아쉬운 듯 책을 주며) 계장님 갑자기 집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셔서 속으로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맞장구 쳤잖아요. 어휴~! 제가 다 놀랬다니깐요.

양주임 (김계장에게 아쉬운 듯 책을 주며) 저는 정말 가져가자는 얘기인줄 알았잖아요. 근데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계장 우리들 양심이 지켜보고 있는디 어찌 가져 간단가?

김계장은 일어나서 흥계장책상에 있는 좋은생각 책도 넘겨본다. 책장 안에는 똑같이 상품권봉투가 들어있다. 김계장은 좋은생각 책 네 권을 흥계장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김계장 (책들을 들고 흥계장 책상으로 가며) 이 책을 두고 간 그 이호권씨는 나이도 어리든마 세상을 잘못 배워 부렀네. (책을 흥계장 책상에 놓고 돌아와 앉는다) 요즘 어떤 세상인디 이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네. 한 이십년만에 봉투를 다 받아 보네잉.

신주임 (탁자위에 책을 가리키며) 저게 바로 급행료네요. 급행료!

양주임 그러네. 사업자등록증 빨리 승인 내달라고 주는 급행료였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약간 과장해서)생각해 보니까 성질나네.

김계장 꼭 옛날사람들이 뭔가 잘 못 알고. 이런 짓을 가르친다니까. 그 젊은 양반이 뭐를 알것어. 주위에서 급행료를 줘야 된다고 막 얘기했것재. 암것도 모름시로 수십만원짜리 상품권을 책속에 담아 왔것재.

양주임 (망설이다가) 근데... 계장님. 이거 이호권씨하고 우리만 아는 일이잖아요. 막말로 저거 가져간다고 누가 알아요. 요즘 같아서는 사업자등록증은 2~3주 안에 다 승인발급 되잖아요.

신주임 그럼 이호권씨는 급행료를 줘서 빨리 처리됐다고 착각하겠네요.

김계장 원소리 그만하고 일들 해. 흥계장님 오시면 얘기하고 감사팀에 자진신고 할거니까. 이제 그만 잊어붙고 일들 해.

신주임 감사팀에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김계장 우리는 뇌물 들어온 것 자진신고 했슨게 무탈하게 지나가고 청장님이 모범상을 주시겠지(웃다가 심각) 근데 이호권씨가 안 돼부렀네.

신주임 이호권씨는 어떻게 되는데요?

양주임 뇌물공여죄로 벌금을 내겠지. 재수 없으면 징역에 갈수도 있고…

홍계장이 결재판을 들고 무대 왼쪽 출입문에서 등장한다.

홍계장 (자리에 앉으며) 아이구야. 결재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신지.

김계장 성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요. (책들을 가르키며) 거기 책속을 한번 봐 보쇼.

홍계장이 책을 들어 책을 펼쳐 상품권봉투를 발견하고 봉투 안을 확인하고 나머지 책들 속에서도 상품권을 확인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결재판을 열어 서류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보며 전화를 건다.

홍계장 여보세요. 이호권씨 되시죠. 아직 안 가셨으면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죠. 아니요. 별일 아니니까. 일단 올라와 보세요.

김계장 아니 성님! 그 사람은 아직도 안 갔데요?

홍계장 한참 전에 과장님실 가는길에 복도 창문을 내다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담배한대 피우나보다 했는데 결재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밖을 내다보니까 그때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속으로 무슨 일 있는가 했지.

양주임 첫 도둑질이 떨어진다고 급행료 담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계장 아마도 그것 때문에 본인도 후회하고 있었겠지.

김계장 공직사회에 급행료가 사라진 것이 언젠디. (책을 가르키며) 저거를 봄시로 허벌라게 놀래 부렸당께요.

홍계장 딴 생각은 안들었고?

김계장 아이고 성님. 지 성격 잘 아시면서. 왜 그라요.

신주임 솔직히 저는 딴 생각 잠깐 했는데 김계장님이 저 책 모아서 홍계장님 책상위에 올려 놓은거예요.

양주임 저는 딴 생각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웃음)

김계장 나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든마. 승진의 사다리로 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는데 아찔 하더라고… 그때 정신 번쩍 차려 부렸재.

홍계장 안 봐도 다 보이네. 우리 신주임은 명품백을 샀을 것이고, 우리 양주임은 저번 어린이날 못 사준 애기 장난감을 사줬을 것이고… 다들 뻔하구만. 그깟 몇 십만원에 공무원인생 끝내고 싶어.

양주임 홍계장님 천년 묵은 여우를 삶아 드셨나 봐요. 완전 딱 맞쳤네요.

신주임 아~ 부끄러워. 어떻게 다 들키지.

홍계장 신주임이야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명품가방 쳐다 보는게 취미잖아. 양주임은 저번에 술 마시면서 아빠노릇도 못 한다고 꾸짖었잖아. 근데 말이야. (상품권 봉투를 가르키며) 저 돈으로 명품가방을 사면 뇌물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고 장난감을 사주면 아들에게 뇌물을 줬다 준 것과 뭐가 달라.

양주임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홍계장 30년 넘게 공직생활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남의 눈치 안보고 내 소신대로 살면 되는 거야. 명품백, 좋은 장난감, 큰 차, 좋은 집 사실 그런것 우리인생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다 남한테 자랑질 하려고 필요 한거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저 건강 지키고 가족들하고 웃으며 사는 게 최고지….

노크소리와 동시에 이호권이 무대 왼쪽에서 등장한다.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홍계장 이호권씨 이리 와 보세요.

이호권은 홍계장에게 다가가고 홍계장은 상품권 봉투 4개를 들어 보인다.

홍계장 (일어나며) 이호권씨. 우릴 뭘로 보고 이런 푼돈을 급행료라고 집어넣었어요. 한 100억 담아 오세요. 그렇게 못 할 거면 이것 가져가세요.

이호권 (봉투를 받아 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생각 한 것 같아요.

김계장 (일어나서 이호권씨에게 다가가며) 급행료 잘 못 목다가 급하게 찢린당게요. 편법과 불법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당게요.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져 부러트는디. 그쪽만 몰랐구만….

이호권 부끄럽습니다. 책을 놓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후회스러웠어요.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조한 마음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 이였어요. 괜한 짓을 했다며 혼자서 많이 자책했어요. 다시 올라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담배만 피웠습니다.

홍계장 이호권씨가 식사대접이란 얘기를 꺼낼 때 뭔가 서류가 엉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호권씨가 제출한 서류를 더 꼼꼼히 검토했는데 모든 구비서류도 완벽히 준비 됐고 신청서도 잘 써서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될 일인데 왜 그러셨어요?

이호권 저… 그게 주변에서 하도 급행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엔 필요하다고.

양주임 구비서류 완벽히 갖추시고, 신청서 오류 없이 써주시면 그게 급행료예요. 담당공무원을 믿고, 제출해야할 서류만 완벽히 제출해주시면 되요.

신주임 저희가 처리하는 일이 많다보니 서류가 미비한 사항은 보충을 해달라고 연락 드리고 그러다보면 처리일자가 밀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접수할 때 필

요한 서류만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그게 진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급행료라니까요.

홍계장 앞으로도 이번처럼 서류만 완벽히 준비하시면 업무처리가 늦어질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결재판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든다) 여기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세요. 사연이 하도 딱 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직접 대면보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았어요.

이호권 (어쩔줄 몰라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계장 아이고 우리 성님이 착해서 그라재. 젊은 양반 오늘 운 좋은 줄 아쇼. 급행료 그거 우리가 감사팀에 신고하면 아저씨 쇠고랑 찰 뻔 했어요. 앞으로 평생 급행료같은거 꿈도 꾸지 마쇼.

이호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네요. 진짜 급행료는 따로 있었네요. 서류를 철저히 잘 준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급행료였네요.

이호권의 휴대폰 전화벨이 울린다.

이호권 여보세요. 어. 여보. 사업자등록증 나왔어. 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그게 진짜 급행료를 써서 그렇지. 그런게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해 줄게. 어 그래.

신주임 사모님. 전화인가 봐요?

이호권 네. 집사람입니다.

신주임 오늘 가족 분들과 외식하시면서 그 상품권은 사모님께 선물해 주시면 사모님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호권 (웃으며) 정말 집사람이 좋아하겠네요. 고맙습니다.

홍계장 이호권씨 이제 들어가 보세요. 아내 분께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이호권 아! 예. 이제 가야죠. 대한민국 관공서는 서류만 완벽히 잘 준비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계장 진짜 급행료는 뒷주머니로 전해지는 돈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서류랑게요. 앞으로도 그런 원칙만 지켜 나가신다면 사업 번창하실 겁니다.

양주임 맞아요. 원칙이 조금 느려보일지는 모르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이 처리하면 그것이 바로 사업을 키우는 지름길이고 급행료일겁니다.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신주임 저두 사업대박 나길 바랍니다. 파이팅요.

이호권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계장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급행료 교환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호권 네.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호권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출입문을 통해 나가고 홍계장, 김계장, 양주임, 신주임은 출입문까지 배웅한다.

김계장 (홍계장에게) 그란디 성님! 언제 그걸 결재까지 맡아 부렸소. 나같은 미워서 승인났어도 안 줄것인디. 감사팀에 그냥 신고하고 상이나 받아볼재.

홍계장 아무 쓸 모 없는 종이쪼가리 한 장 얻으려고 젊은 사람 인생을 망쳐야 되겠어? 이호권씨도 오늘 많은 것을 느꼈을 거야. 이걸 계기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지.

김계장 그라네요. 그란디? 아까참에 얘기 안 해준 성님의 삶의 방향은 뭐요?

신주임 맞아요. 저도 많이 궁금했었어요. 홍계장님의 삶의 방향!

홍계장 내 인생의 목표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는 공직자로서 청렴한 것 이야.

양주임 부끄럽지 않은 삶 이란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홍계장 별거 없어! 공직자로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청렴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마! 내가 전등불 끄고, 이면지 쓰고, 수돗물 아껴 쓰고, 에어컨 안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청렴의 출발이야. 다들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거라구.

신주임 왜? (몽당연필을 들고) 이 몽당연필 쓰는 것은 빠세요? 이것도 청렴의 출발이죠(웃음)

김계장 모리지 같은 우리 성님. 6급으로 정년퇴직 해도 질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퇴직을 하것구만. (두손 모두 홍계장을 가르키며) 모지리의 행복한! 정년퇴직!

모두들 한참 웃고있더니 홍계장이 시계를 본다.

홍계장 6시 넘었는데 퇴근들 안해. 나 먼저 간다. (홍계장 웃으며 서둘러 퇴장한다)

김계장 (김계장을 따라 퇴장하며) 성님. 오늘 쏘다며! 어디로 도망치요?

양주임 (김계장을 따라 퇴장하며) 계장님들. 미디엄족발 드셔야지요? 같이 가요.

신주임 (양주임을 따라 퇴장하며) 선배님들 족발에 와인은 어때요? 천천히 좀 가요.

김계장 (목소리) 신주임! 늦게 나온 사람이 전기불은 끄고 나와야지. 청렴 몰러?

신주임 (목소리) 알았다고요. 에너지 절약도 청렴!

텅빈 사무실에 신주임이 다시 등장하여 출입문 쪽 전기스위치로 간다.

신주임 (객석을 보며 밝은 목소리로) 청렴의 출발은 작은 것 부터 실천하는 것.

신주임이 벽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면 무대 어두워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어둠속에서 태극기와 공무원신조가 걸려있는 무대 벽면의 위쪽만 밝게 빛나고 있다.

-막-